18일 Market Index
코스피 5067.44 (+98.96)
코스닥 662.81 (+12.75)
금리(국고채 3년) 3.736 (+0.011)
환율(원·달러) 1333.0 (-5.2)

metro 경제

하나금융그룹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02)721-9841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뉴메트로 11주년 대한민국 희망을 찾아서 2026년 11월 19일 목요일

‘AI커닝’ 막을 안전설계 제각각… 엇박자 정책에 ‘구멍 숭숭’

대학수학능력시험 D-DAY

초소형 카메라·AI안경 등
촬영·알림기능 공통 안전기준 전무
과기부, 온라인 판매 기기 인증 점검



스마트안경 너머로 서울 시내의 한 수능 시험장 학교 모습이 보이고 있다. /뉴시스

초소형 카메라와 인공지능(AI) 안경을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 파문이 확산하면서 전자기기 안전설계가 도마에 올랐다. 특히 제조사마다 촬영 관련 안전장치가 제각각이지만 정부는 이를 관리할 공통 기준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18일 전자업계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초소형 카메라와 AI 안경의 촬영 알림·차단 기능을 의무화한 공통 안전기준이 없어 제품별 보호장치에 차이가 있다. 현행 전파법상 적합성평가도 전자파·무선통신 등 기술적 적합성을 확인하는 절차로, 부정행위 방지 기능은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기사 4면〉

안전설계 규제를 담당할 정부 부처도 명확하지 않다. AI 안경의 안전설계 기준을 둘러싼 관계부처의 역할도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촬영 표시등과 카메라 차단 기능을 기술적 사안으로 보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안경의 기능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입장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9일 스마트안경 제조사에 촬영·녹음 사실을 주변 사람이 인지할 수 있도록 설계할 것을 권고하고 연내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촬영 표시등이나 가림 감지 장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은 아니며 위장형 초소형 카메라 등 다른 전자기기도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처럼 공통 안전기준이 없는 만큼 보호장치 적용은 사실상 제조사 판단에 맡겨져 있다. 삼성전자가 구글·젠틀몬스터 등과 개발한 AI 안경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는 촬영 표시등을 가리면 카메라가 비활성화된다. 메타와 중국 로키드도 AI 안경에 촬영 표시등과 가림 감지 기능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기능은 주로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을 알리거나 차단하기 위한 것이며 AI의 실시간 정보 처리나 개조 전자기기에는 보호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위장형 초소형 카메라까지 동일한 안전장치를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는 상태다.

실제 부정행위에 악용되는 전자기기도 일반 안경과 구별하기 어려운 AI 안경부터 단추·필기구 형태의 초소형 카메라, 개조 계산기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외관만으로 촬영 기능을 식별하기 어려워지면서 시험장 감독에도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해외서도 위장형 전자기기의 판매 사례가 확인됐다. 국내 보안업체 에스투더블유(S2W)가 공개한 조사에서는 중국어권 텔레그램 채널에서 단추형 카메라와 초소형 이어폰 등의 판매 게시물이 발견됐다.

문제는 관련 제품의 국내 유입이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초소형 특수카메라 수입량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배 이상 증가했다. 다만 해당 통계에는 일부 AI 안경도 포함돼 있어 이를 모두 위장형 카메라나 부정행위용 장비로 볼 수는 없다.

수입 규모가 확대되고 있지만 위장형 카메라의 유통이력을 관리할 별도 제도는 마련되지 않았다. 정부는 2017년 관련 제품의 수입·판매업자 등록과 유통이력 관리를 추진했으나 법제화에 실패해 구매자와 거래 내역을 포괄적으로 관리할 법적 근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최근 정부의 대응 역시 미인증 제품 단속에 집중돼 있다. 과기정통부는 중앙전파관리소와 함께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전자기기의 인증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네이버와 당근 등 온라인 플랫폼도 부정행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상품의 판매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인증받은 제품도 부정행위에 악용될 수 있어 미인증 제품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정부는 오는 19일 수능을 앞두고 AI 안경 검사와 의복 단추 가림 조치 등 시험장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제조사별 안전설계와 위장형 전자기기의 유통관리 기준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았다.

정부 부처 관계자는 “휴대전화에 탑재된 카메라도 변형 카메라의 일종으로 볼 수 있을 만큼 제품의 형태와 사용 목적이 다양하다”며 “칼이 위험성을 지니면서도 요리에 사용되는 것처럼 카메라 역시 정상적인 활용 목적이 있어 일률적인 규제 지침을 즉각적으로 마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韓·中 관계 전면복원 넘어 성숙한 동반자 관계 희망”

李 대통령-시진핑 정상회담
“한반도 평화·안정, 양국의 이익
FTA 발판, 경제협력 발전시켜야”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8일(현지 시간) 중국 선전 치린산장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뉴시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에이펙·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중국 선전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 관계가 전면 복원을 넘어서 더욱 성숙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선전 치린산장(영빈관)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과 34분 가량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의 만남은 지난해 11월 경주, 올해 1월 베이징에 이은 세 번째로, 이번 회담에선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포함한 역내 안보 정세가 핵심 의제로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19일 선전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사상 첫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사상 처음으로 3자 회담을 하는 만큼, 한국을 배제한 채 북한의 핵 군축 등 한반도 안보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양국의 공동 이익에 해당되는 만큼 함께 노력해서 한반도 평화 공존의 시대를 열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성숙하게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한중관계에 대해 “1년 전 약속했던 대로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흐름은 공고히 자리 잡았고, 우리 국민들도 일상에서 양국 관계 발전의 성과를 체감하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 한중 교역액은 전년 동기 대비 50% 가까이 늘었고, 양국 간의 인적 교류도 2019년 이후 7년 만에 10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경제 협력을 두고도 “한중 양국은 내년에 수교 35주년이 된다. 이 뜻깊은 계기를 양국 관계 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면 좋겠다”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 투자 협상 타결을 발판으로 양국이 경제 분야에서도 수평적 호혜적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시진핑 주석은 “현재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지만 중한 양국은 모두 다자주의 그리고 자유 무역의 수혜자”라며 “중국은 한국 측과 함께 소통과 조율을 강화하고 글로벌 상업망, 공급망의 안정과 원활함을 수호하고 더욱 공조하고 글로벌 관리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중국 측은 한국 측과 함께 노력하여 작년 경주 회의 성과를 기반하고, APEC 중국의 해에 각종 의제를 추진하며 아태지역 FTA 그리고 아태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며 지역의 평화와 발전을 하는데 더 큰 기여를 하겠다”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社告

메트로 조경대상 休&休

2026 입주 아파트 조경 우수단지 시상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이 ‘메트로 아파트 조경 대상 휴앤휴(休&休)’의 주인공을 선정합니다.

올해 메트로신문 ‘아파트의 미학 휴앤휴’에 소개된 아파트 가운데 ▲조경혁신상 ▲친환경단지상 ▲스마트환경상 ▲미래가치대상 ▲테마조경상 ▲브랜드혁신상 ▲커뮤티니혁신상 등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주변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조경, 스마트 첨단 기술의 융복합 구현, 녹지공간 등 아름답고, 편안한 아파트단지 선정을 통해 건설사와 입주민을 응원하기 위한 조경대상입니다.

‘2026metro 아파트 조경대상 휴앤휴’는 올해 소개된 30여곳을 대상으로 대학 교수 등 전문가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1차, 2차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시공사는 물론 아파트 주민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심 사 방 식 : 소개 아파트단지 대상으로 심사위원 합의로 선정
◆수 상 명 : 조경혁신상·미래가치상 등
◆수상작 선정 : 12월 1일
◆시 상 식 : 12월17일

metro

메트로 한줄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입국 거부’ 日정부에 항의서한…“외교적 논란 해소해야”
▲국힘, ‘조작 징계’ 추가 폭로에 내홍 지속…“정치공작” “張 입장 밝혀야” /사진 뉴시스

▲하루 앞두고 지침 변경…‘흑색 연필’ 제외 필기구 휴대금지
▲중앙선관위 직원 등 8명 구속영장 청구…특검 출범 72일만

▲조태용 전 국정원장, 징역 2년6개월 확정…“지위 이용해 정치관여”
▲美 국무 “트럼프, 김정은과 대화 준비돼 있어…회동은 미정”